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제18차 에너지위원회서 조성계획안 확정 전국 최초...시·도 일원 2024년까지 조성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 도약 전기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할 전기가 마련됐다.

6일 시·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난 9월25일 양 시도가 공동신청한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융복합단지(이하 단지) 조성계획안'이 심의·확정됐다.

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에너지와 타산업 간 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해 국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기반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이 집중화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광주의 연구개발 인프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단지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기

술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지 조성계획은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거점 구축'을 목표로 중점산업과 단지 범위를 정하고 산·학·연 집적,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기술혁신을 통한 단지 발전전략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단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광주, 전남 일원 18.92㎢에 오는 2024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중점산업은 국가와 지역 에너지 정책,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성, 에너지 공기업의 핵심 역량, 에너지산업 생태계 분석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 등 3개 분야다.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실증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생산-소비-거래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직류기반의 송배전 기자재, 분산전원 핵심융합 기술을 개발·실증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은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에너지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을 구축해 신서비스를 창출한다.

풍력산업은 신안지역에 8.2GW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ESS, 전력 송배전, 수소 등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을 추진한다.

융복합단지는 코어지구(광주·전남혁신도시권, 연계1지구(광주권), 연계2지구(목포권))로 구분된다.

코어지구(10.73㎢)는 '에너지공기업형'으로 3대 중점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연계1지구(6.85㎢)는 '신에너지서비스실증형'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중점산업으로 추진한다. 연계2지구(1.34㎢)는 풍력산업 실증, 생산 등 사업화에 주력하게 된다.

단지에는 연산 산·학·연 집적을 통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중견기업은 물론 한국폴리텍대학 등 에너지 융복합 전문 인재양성기관을 유치하고, 광주과학기술원, 한

전공대,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에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한전공대와 연계해 중점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센터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통해 415개의 기업 유치하고 6577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반시설 조성과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혁신 성장 근거지로 확고히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함께 이윤창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통해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튼튼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 일류 제품과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아카데미, 서상일 금곡서당 훈장 강연

광주 동구가 오는 8일 오후 3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서상일 금곡서당 훈장을 강사로 초빙해 '호남역사의 자긍심과 인물 자랑'을 주제로 제238회 동구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 훈장은 전남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전국을 무대로 한국사, 예절,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S광주 열린마당, 전라도 매력청 등에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날 강의는 호남을 빛낸 역사 속 인물들을 조명하고, 호남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 애항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서구, 생활관리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광주 서구는 지난 5일 관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최근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동료들과 소통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지친 몸과 마음에 숲의 향기로 에너지 채우기'라는 주제로 숲속치유활동 및 근육통스프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남구청 올해 최고 정책사업, 주민들이 뽑는다

광주 남구는 올 한해 선보인 각종 구정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반영, '2019년 올해의 구정 베스트 5'를 선정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남구청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남구 엠보팅'을 통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남구 엠보팅'을 검색해 관련 앱을 내려 받은 뒤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기존에 남구 엠보팅에 가입해 있는 주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북구, 환경개선부담금 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

광주 북구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업무 혁신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지난 8월부터 광주은행, 새울행정시스템 사업단과 협업체 환경개선부담금 실시간 수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와 수납 업무는 2010년부터 북구시가 도입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각 구청이 운영하고 있다.

북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광주은행, 새울행정시스템 사업단과의 연계성 검토 등을 거쳐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가 없는 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광산구,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자치구 4위

광주 광산구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4일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2019'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지방자치종합경쟁력 부문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 국 지방 자 치 경 쟁 령 지 수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KLICI)는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분석·평가해 지방자치경쟁력을 표준 점수화한 지표.

광산구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경쟁력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582.56점을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477.97점을 100점 넘게 앞서고, 광주전남에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수치다.

“에너지 신기술 한자리에”...국제전력기술엑스포 개막

내일까지 광주 DJ 센터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9)가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5회차를 맞은 BIXPO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국내외 초청인사와 참가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촘촘하게 이어진 초연결 사회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변화에 주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99개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술 전시회, 51회의 국제컨퍼런스, 국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9)에 참석해 김종갑 한전 사장 등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발명특허대전 및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신기술전시회에는 GE·지멘스·노키아·SK 텔레콤·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등 299개 기업이 참여하며, KEPSCO 홍보관, 수소에너지특별관 등도 마련된

다.

전시회와 함께 아시아, 북미, 유럽 등 20개국 60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 촉진 성과 창출에도 주력한다.

신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51개의 국제컨퍼런스가 월드뱅크, 국제대전력망기술협의회(CIGRE) 등 국제기구와 대한전기학회, 스마트그리드연구회 등 전문기관 및 한전 주관으로 열려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전력에너지 분야 CEO 등 경영진과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가 모여 미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한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인기를 모으는 국제발명특허대전에는 모두 160개 발명품이 전시되며, 유망특허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해 한전 보유 특허의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실천하게 된다.

신봉우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월	4월	3월	2월	1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의료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277-0000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